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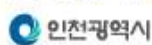


| | | |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 | 보 도 자 료 | | 2025년 수도권매립지 종료  |
| | 배포일자 | 2021년 5월 31일(월) 총 3매 | |
| 담당 부서 | 시립박물관 | 담당자 | • 시립박물관 전시교육부장 배성수 ☎440-6731 • 시립박물관 학예연구사 우석훈 ☎440-6735 |
| 사진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 |
| 보 도 시 점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

인천시립박물관 초등체험프로그램

‘상설체험교실’ 1년 여 만에 기지개

- 6월 1일부터 운영 재개 -

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작년 2월 이후 중단됐던 인천시립박물관 상설체험교실의 운영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밝혔다.

상설체험교실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별도의 사전 예약 없이 현장에서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어린이 체험교육 프로그램이다.

민화·길쌈·도자기·전통인쇄·청동기·탁본 등 6개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1주 단위로 순환 운영한다. 6개의 체험프로그램을 모두 완료한 초등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.

또한 시립박물관 상설체험교실의 가장 큰 특징은 전문 교육과정을 거친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.

올해 상설체험교실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는 56명으로, 모두 박물관에서 열리는 기본 교육 및 실무 교육을 이수하고 수습봉사 및

시연평가를 거쳐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.

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장은 “어린이들이 우리 역사와 전통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상설체험교실의 문을 다시 열어서 기쁘다”라며 “박물관을 방문하는 어린이들이 상설체험교실에서 행복한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 인천시립박물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매일 방역 소독과 체험교실 및 체험키트 소독 등을 실시한다. 이 밖에도 참여 인원(기존 10명 → 6명)과 교육 시간 축소(기존 50분 → 40분) 등 코로나19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.

평일 오후 3회(1시반, 2시반, 3시반), 주말과 방학에는 오전 3회(10시, 11시, 12시) 오후 3회(1시반, 2시반, 3시반) 등 총 6회가 진행되며, 수업 운영시간은 회당 40분이다. 참여 인원은 6명이며, 당일 박물관 1층 안내 데스크에서 선착순으로 접수 가능하며 무료로 진행된다.

기타 체험교실 관련 자세한 문의사항은 인천시립박물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유선(☎032-440-6735)으로 문의하면 된다.

[붙임] 관련 이미지

[붙임] 프로그램 개요 포스터

상설체험교실

| | |
|----|---|
| 대상 | 1회당 초등학생 6명 |
| 내용 | 민화, 길쌈, 도자기, 전통인쇄, 청동기, 탁본 등 6개 프로그램을 1주 단위로 순환 운영 |
| 시간 | 평일 : 오후 1시 반, 2시 반, 3시 반 주말 및 방학 : 오전 10시, 11시, 12시 / 오후 1시 반, 2시 반, 3시 반 ※ 40분 수업, 20분 환기 및 소독 |
| 장소 | 시립박물관 2층 상설체험교실 |
| 신청 | 당일 1층 안내데스크에서 선착순 접수 (교육비 무료) |

※ 6개 프로그램을 모두 체험한 친구들에게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.

인천광역시립박물관
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